

수산물원산지표시 우수시장

‘강진군수협 판매장’ 선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최...차별화 전략 관리



지난 3일 강진군수협 수산물 판매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최한 '수산물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에서 우수시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수산물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는 원산지 표시의 자율적

관리를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확산을 위하여 전국 전통시장, 도·소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3개소를 선정한다.

강진군수협 수산물 판매장은 1994년 신축하고 2011년 리모델링 작업을 한 뒤 수협중앙인에게 인

대 운영 중이다. '최고 신선·최고 품질·최고 저렴'한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로 어민이 당일 직접 잡은 수산물을 중간 유통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우수시장 선정은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과 더불어 2019 올해의 관광도시, 마량농도수산물시장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전략에 큰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재형 상인회장은 "원산지 표시 불이행 및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자체규약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타 지역 수산물 판매장과 차별화된 전략을 두어 철저히 지속 관리해 오고 있다"며 "20개 입점 중매인들 모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수산물시장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함평군 제6회 청림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함평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6회 청림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청림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퀴즈대회에는 각 부서 대표 81명이 참여해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생활화 의지를 다졌다.

대회는 부서장 포함 3인 1조 팀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OX형, 사지선다형 등 총 50여 개 문항이 난이도별로 출제됐다.

대회 결과 신광면이 최우수상을 차지해 상금 100만 원과 청림마일리지 50점을 수상했다.

우수상 2개 팀엔 상금 50만 원과 청림마일리지 40점이, 장려상 4개 팀엔 상금 30만 원과 청림마일리지 30점이 각각 시상됐다.

특히 청림 마일리지는 군 청림

시책 참여도에 따라 부서별로 매달 누적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은 부서의 경우 연말에 시상금을 지급받는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행식은 퀴즈대회지만 청림골든벨의 진짜 목적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데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군 공직자 모두 청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흥군, 겨울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우량 종자 분양

오는 11일까지 신청받아 중순부터 보급 예정

장흥군은 고품질 품자로 생산을 위해 겨울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우량 종자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한 겨울 사료작물로 척박한 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에서는 작년부터 종자 분양을 시작하고, 보급 농가 대상으

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실시했다.

농가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다음에도 트리티케일 종자를 분양 받아 재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분양할 트리티케일 종자량은 3.5톤으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와 혼합 파종시 50ha 이상 재배 가능한 양이다.

혼과 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는 28kg/ha, 트리티케일은 60kg/ha를 파종하면 되는데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종자는 가볍고 트리티케일 종자는 무거워 따로 파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분양 신청은 11일까지 장흥군 축산사업소(860-6722)에 하면되고, 9월 중순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완도군, 공무원직 노조와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협약

완도군과 완도군청 공무원직 노조인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일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는 1,000만원 상당의 완도사랑상품권을 구입했다.

노회나 지회장은 "조합원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완도

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시장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우철 군수는 "지금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발행한 완도사랑상품권 구매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

른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완도군청 공무원직 직원 노동조합으로 206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매년 은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완도=김광수 기자

신안군, 홍도 불불락 축제 개최

신안군은 석양이 시작되면 바닷물과 섬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홍도에서 오는 20일부터 21까지 2일간 '홍도 불불락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가을의 전령사 불불락은 연안에 정착하여 갑각류, 작은어류, 갯지

렁이류 등을 섭식하는 어종으로 2~6월 사이에 산란을 하며, 지역 방언으로 '열기'라고 불린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0호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홍도는 아름다운 기괴암석과 신비한 자연의 비경을 자랑하는 섬으로써, 이번 축제 기간에는 해

상 선박 퍼레이드, 불불락 회무침 요리 및 시식회, 깜짝 경매,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과 선상낚시 체험행사를 통해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전해줄 계획이다.

최일남 축제추진위원장은 "홍도의 불불락을 소재로 홍도와 천사섬 신안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하고자 주민들이 단합하여 축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영암 독천5일시장, 시설현대화 새단장



영암군은 기존 독천5일시장 자리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독천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재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3일 독천5일시장 장터마당에서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 기념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하여 영암군의회의장과 의원, 도의원 읍·면 기관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영암군의 대표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인 독천5일시장은 이용객의 편리한 장보기를 위해 현대화라는 뜻을 입고 새롭게 태어났다.

금년 1월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약 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된 독천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국비 18억과 군비 14

억 등 전체 32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기존시장의 노후화된 장옥(116개)을 재건축하고 연면적 1.413㎡의 규모에 비가림막, 장터마당, 내부 바닥 포장 실시 등 시장 전체를 새롭게 개선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고객의 쇼핑 환경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현대화라는 새로운 옷을 입힌 독천5일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영암군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특색에 맞는 품목공연 행사 개최와 먹거리·즐길거리 제공 확대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산면 소재지 및 주변 상권의 회복과 독천5일시장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